

동행복권, 나눔로또 10년 집권 무너뜨리다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에 선정

사업경험 매출 등서 열세 예상 뒤집어 유진기업·인터파크는 심사결과 충격 시중은행 참여 난항 등이 본 계약 과제



이슈

4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10년 간 복권 사업을 독점했던 나눔로또(1대 주주 유진기업)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서 제주반도체(43.7%),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0%), 케이뱅크(1.0%) 등으로 구성된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10년 간 나눔로또라는 이름으로 복권 사업을 운영했던 유진그룹(나눔로또 컨소시엄), 온·오프라인 발권사업을 강점으로 내세운 인터파크(인터파크 컨소시엄) 등 경쟁자들과 경쟁했다.

당초에는 사업 경험이나 매출 규모 등에서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동행복권 측이 불리하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이사(왼쪽에서 다섯번째)가 2월26일 동행복권 컨소시엄 출범식에서 컨소시엄 업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4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뉴스스

다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심사 최종 결과는 동행복권 91,0751점, 인터파크(90,5663점), 나눔로또(89,6716점) 순이었다. 동행복권은 기술 부문에서는 3개 컨소시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가격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사업권을 따냈다. 경쟁자들에 비해 0.2% 가장 낮은 1.12%의 수수료

율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실상 가격 후려치기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입찰금액을 적어내 이달에 예정된 복권사업자 본 계약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본 계약까지 당첨금 지급 업무를 위한 시중

은행 참여가 필수인데 수익률이 낮아져 은행들이 제후를 꺼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낮은 입찰가를 만회하기 위해 비용절감에 나서는 과정에서 각종 복권사고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4기 사업자부터 복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역량을 어떻게 갖출지도 관건이다.

한편, 세 후보 중 가장 약체로 평가됐던 동행복권에 불의의 일격을 맞은 후보 업체들은 아쉬움이 짙다. 특히 나눔로또(유진기업)는 기존 사업자라는 유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충격이 남 다르다. 10년간 지속했던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 역시 쇼핑, 도서, 여행, 티켓, 공연 등 사업다각화 속에서 복권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자 실망한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한 뒤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기 복권수탁사업자는 12월부터 5년 간 로또, 즉석식 복권 등 복권사업을 수학해 운영하게 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3월 5~9일

코스피지수	2459.45	▲	+84.39
코스닥지수	865.80	▲	+20.8
日 닛케이 지수	2만1469.20	▲	+427.11
中 상하이 종합	3307.17	▲	+50.2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93	▲	+0.003
환율 (원·달러)	1069.8	▼	-13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402.15	▼	-752.73

지수는 3월 9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조양호 회장, 방위산업 공로 감사패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은 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공공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정기총회에서 14년간 맡았던 방진회 회장에서 물러났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 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한국방위산업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이끈 공로로 제16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최평규 S&T그룹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양호 회장은 2004년 제11대 방진회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했던 2004년 4조6440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4조8163억원으로 늘었고, 방위산업 수출액도 4억불에서 32억불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04년 171개사였던 방진회 회원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643개사로 대폭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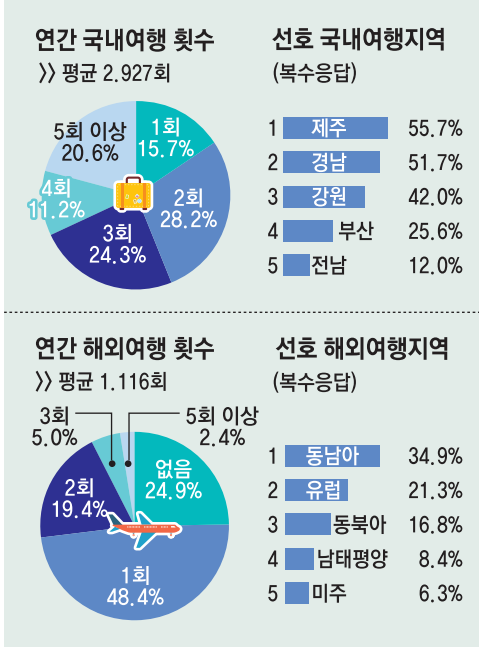
비즈 TALK TALK

- “앞으로 3~4년이 위기, 추경 토론회자”(김동연 경제부총리,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예상한다며)
-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 42조, 2020년 매출 36조 목표”(박진후 LG화학 부회장, 충남 대산공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출 상당 부분이 전기차(EV)에서 늘어날 것이라며 수주량을 바탕으로 해 정확성이 있다며)
- “미국 물가상승률 연내 2% 도달, 美통화정책 결집될 시라져”(한국은행 보고서, 미국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미연방분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데이터 경제

한국인, 연간 국내여행 2.9회 해외여행은 1.1회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이하 KATA)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거주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국내여행은 1년에 2.9회, 해외여행은 1.1회를 하며, 여행 시기는 5월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는 성수기를 피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4월을 가장 선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내 여행지는 제주, 경남, 강원 순으로 선호했고, 해외는 동남아, 유럽의 인기가 높았다. 여행정보 취득 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행사, TV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편집 | 신하늬 기자



조용병 회장(앞줄 가운데)이 '신한 쉬어로즈'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 여성리더 멘토링 '신한 쉬어로즈' 신설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신한금융그룹이 11일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 '신한 쉬어로즈'를 신설했다. '쉬어로즈'는 여성을 뜻하는 'she'와 영웅을 뜻하는 'heros'를 합친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여성 리더들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의 본부장급 최상위 직급 부서장들로 후배 여성 리더 육성

을 위한 사내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룹 내 여성 상·하위 직급간 코칭과 멘토링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여성인재 풀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창의력과 유연성, 감성과 소통 능력이 풍부한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테마파크의 봄은 축제...롯데월드 '마스크 페스티벌'

베니스 가면무도회 테마 퍼레이드 펼쳐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17일부터 6월17일까지 봄 시즌 축제 '마스크 페스티벌: 컬러 블라썸'을 진행한다.

메인 행사는 '환타지 마스크 퍼레이드'로 베니스 가면무도회, 동화 속 주인공, 아프리카 자연 세계를 테마로 100여명의 배우들이 익살스러운 가면과 사자, 공작 등 동물을 형상화한 가면을 쓰고 나선다. 특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체서 고양이 형상의 버스를 타고 앨리스, 흰 토끼, 쌍둥이 형제 등이 댄스 파티를 펼치는 서브 퍼레이드 '편! 편! 앨리스'가 이번 축제의 기대 이벤트다.

가든 스테이지에서는 가족 뮤지컬쇼 '신비의 가면 동화나라' 공연과 여성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는 '브로드웨이 밴드쇼'가 열린다.

축제에 맞춰 파크 내부는 마스크, 페인팅, 풍선, 꽃, 플라뎀 캔디 등을 활용해 화사하게 꾸미고, 만남의 광장, 회전목마 앞 광장, 키디존 등 파크 곳곳을 포토존으로 조성한다.

시즌 특집 셀프 스튜디오 '그랄싸진관'도 축



롯데월드 어드벤처 봄 시즌 축제 '마스크 페스티벌: 컬러 블라썸'.

사진제공 | 롯데월드

제에 맞춰 어드벤처 4층에 문을 연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생사진관'의 롯데월드 버전으로 컬러, 플라워, 가족 등 다양한 테마로 꾸몄다.

봄 시즌 축제 프로모션으로는 3월에 생일이 있는 경우, 자유이용권을 동반 1인까지 반값으로 할인하고, 신한카드 제휴실적 충족회원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제현장.jpg

“그녀의 깨끗한 이미지처럼...” 오젠 새 모델 윤아 발탁



한샘이 진공 블렌더 오젠의 새 모델로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윤아를 발탁했다. 윤아의 깨끗한 이미지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제공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CF에서 윤아는 오젠이 자연 진공 상태로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진공블렌더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한샘

문체부, 평창패럴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0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코리아하우스(이하 코리아하우스·사진)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복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릉 올림픽파크 안에 조성한 코리아하우스는 동계패럴림픽 기간 동안 운영하며 한국 홍보관,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장, 기자 송고실, 방송 스튜디오 및 경기영상 분석실, 선수단 휴게라운지 및 사무실로 이루어졌다.

김재범 기자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 20일 열려

'제6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이 20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비타민C를 통한 건강한 삶'을 주제로, 비타민C의 건강

수명 연장 효과, 질병 예방 효과,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은 공동주최가 2008년부터 후원하는 학술대회다. 이번 행사는 한국식품과학회 홈페이지에서 관심있는 누구나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하다.

정용운 기자

올리브영, 자체 색조 브랜드 '컬러그램' 론칭



헬스&뷰티스토어 올리브영이 자체 색조 브랜드 '컬러그램' (사진)을 론칭했다. '나만의 컬러(color)를 만드는 단위'(gram)라는 뜻으로 재미있는 놀이같은 메이크업을 제안한다. 립, 아이, 베이스 등 15종 79품목의 다양한 색조 제품을 통해 뷰티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층을 겨냥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가성비와 새로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여 뷰티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정욱 기자